

EXCELLENCE



생산직 신입사원



가족 이야기



표지이야기

9가지 전사전략과제 중 업계 최고 수준의 운영효율성 달성(Best-in-class operational excellence)을 통해 회사의 성공적인 미래를 눈앞의 현실로 바꾸어나가는 이익개선팀을 소개합니다.
(관련기사 19~23쪽)

통권 제388호

발행일 2014년 3월 4일

발행처 에스-오일주식회사 광고팀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공덕동 471)

홈페이지 www.s-oil.com

E-Mail sabo@s-oil.com

편집·디자인 (주)디자인소호 02-514-5164

인쇄 (주)성환인쇄 02-2273-0583

04

주요소식

임원 워크숍

협력사 정기보수 파트너십 협약

윤활기유 런던 콘퍼런스 리셉션

국내영업본부 워크숍

전문대졸 신입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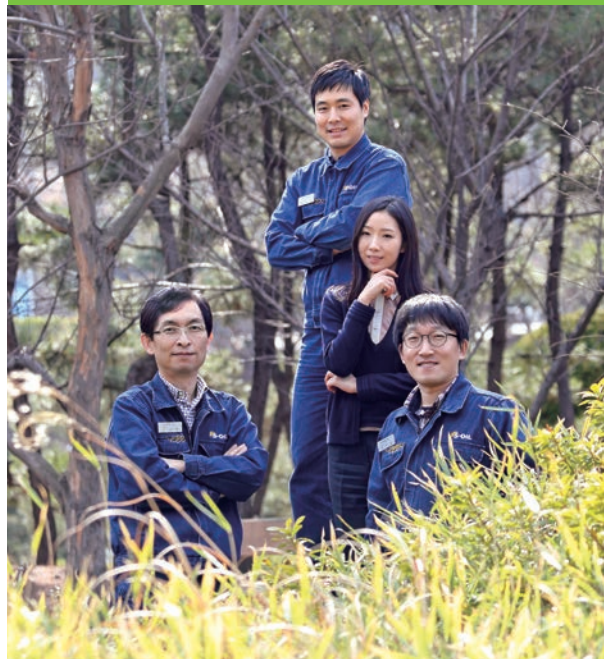
단신



19

최강 팀

모두를 위한 이익개선 관리가 운영효율성 향상의 기초입니다
이익개선팀



24

소식 모아보기

텔레비전에 '구도일'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폭설 피해 우리의 관심이 치료약입니다

26

햇살나눔

햇살나눔 캘린더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공연
햇살나눔 단신



32

No.1 주유소

품질에 대한 확신이 고객 믿음으로 커져이 쌓입니다
경북 철곡 대원주유소



34

가족 이야기

사랑으로 만든 봉어빵 같은 가족이랍니다
해상출하과 이경삼 사우 가족



40

걷고 싶은 길

천혜의 마루금과 바닷길 걸으며 오롯한 선비정신 일깨운다
경북 영덕 블루로드-목은 사색의 길



44

나의 롤모델

삶이 곧 사랑이고 사랑이 우리 삶의 원천입니다 <배우 차인표>

46

열린 서재

G2, 중국을 추동하는 힘은 무엇인가! 조정래 <정글만리>

48

마음 읽기

'흡연'은 '중독'이란 이름의 병 <담배 중독>

50

독자광장

위기의식 중무장하고

오늘도 전진합니다

임원 워크숍



새로운 핵심성과지표 시스템 도입

‘2014년 상반기 임원 워크숍’이 2월 14일 그랜드 힐튼 서울 호텔(서울 서대문구 연희로)에서 열렸다. 이번 임원 워크숍은 크게 2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는 회사가 새롭게 개선·도입하는 KPI(핵심성과지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강화해 성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전에 진행된 KPI 관련 세션에는 개선된 KPI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임원들의 질의, 그리고 개선작업을 추진한 베인앤컴퍼니에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워크숍이 운영됐다. 그리고 오후 첫 시간 9가지 전사전략과제(9 Corporate Initiatives)와 관련한 전략발표에서는 운영총괄과 마케팅총괄이 발표에 나섰다.



나세르 알 마하서 CEO와 임원진이 워크숍을 열고 미래 전략실행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회사의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전략실행에 관해 강력한 동기를 불어넣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글 안상렬(인력개발팀)

사진 전부순

나세르 알 마하서 CEO를 비롯한 임원진 총 60명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개선된 KPI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성과와 연계하는 전략을 고민했다. 이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요소에 대한 대응전략을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

사례 공유를 통한 전략적 아이디어 도출

워크숍 또 하나의 큰 목표는 '공유'에 두었다. 지난해 실시한 임원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 중 현업에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전 임원들이 공유할 가치가 있는 내용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발표 내용은 리더십, 소통, 성과관리, 조직관리, 미래성장 등 5개 범주였다. 발표 뒤 각 내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그 가운데 특히 최

근 경영환경 변화와 관련된 내용의 발표에서 우리회사가 현재 취하고 있는 전략을 점검하고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 향후 보완계획 등에 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잠재력 향상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마하서 CEO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는 비즈니스 사이클이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고 평가하며 '위기 의식'을 강조했다. 이어 새 도전을 향한 용기를 북돋우며 "우리의 열정, 능력과 헌신적인 자세는 부족함이 없지만, 우리에게 해 할 일이 많고 빛의 속도로 달려나가야 할 환경에 처해 있기에 구성원 각자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이해하고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임원들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헌신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했다. 



상생협력 강화로

동반성장 다짐합니다

협력업체
정기보수 파트너십 협약



우리회사가 '협력업체 정기보수 파트너십 협약식'을 열고 협력업체들과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2월 21일 온산공장 신본관 대회의실에서 우리회사는 연간 정기보수(Turn Around)에 장기적으로 참여해온 협력업체 6개사(유한티유, 원일기업, 대신기공, 석원기공, 로텍엔지니어링, 후림엔지니어링)와 협약을 맺고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은 회사와 협력업체 간 전략적 제휴로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안전/품질 관리 능력향상, 안전규정 및 작업절차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등 상생협력을 내용으로 한다. 박봉수 수석부사장은 "협력사와 파트너십을 굳건히 함으로써 상호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문화를 달성하기 위한 좋은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회사는 지난 2009년부터 협력업체 산업재해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더불어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공동캠페인 전개, 협력업체직원 건강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협력업체 안전회의 개최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협력업체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기보수에 참여해온 협력업체와 지속적으로 상생협력하기 위한 파트너십 협약이 체결됐다. 이로써 우리회사는 협력업체들과 동반성장을 이루고 무재해 사업장을 구축하며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글 심규익(대외업무팀)
사진 박석수(대외업무팀)



전 세계 유탄기유 고객과의

뜻깊은 만남

유탄기유 런던 리셉션

영국 런던에서 유탄기유 고객초청 행사가 개최됐다. 우리회사는 전 세계 유탄기유 시장 정보와 업계 동향을 파악하면서 고객과 관계 강화를 도모하며 신뢰를 굳게 다졌다.

글 손원진(암스테르담지사)



우리회사가 유럽 현지의 유탄기유 고객과 관계 강화를 도모하는 '컵테일 리셉션(S-OIL Cocktail Reception)'을 열었다. 2월 19일 영국 런던 소피텔세인트제임스 호텔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유탄기유 고객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우리회사는 2012년 이래로 3회째 유럽 현지에서 유탄기유 행사를 개최해 고객 및 업계관계자들과 소통해 오고 있다. 올해 리셉션은 유탄기유 국제 정보제공 업체 ICIS가 개최하는 세계 최대 유탄기유·유탄유 콘퍼런스 'ICIS London Conference' (2월 19~21일) 중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유럽뿐 아니라 미국·아시아·중남미·중동 등 고객 90여 명이 참석해 우리회사와 제품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참가자들은 콘퍼런스 기간 중 대표적인 이벤트로 자리매김한 우리회사의 리셉션 현장에서 다양한 정보로 교류했다.

리셉션 현장에는 참석자를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됐다. 현악4중주단이 인상 깊은 공연을 펼치는 한편, 풍성한 컵테일·디저트로 흥취

가 고조됐다. 현장에 포진한 우리 직원들은 고객들과 만나 격의 없이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유탄기유 제품과 생산공정 등을 소개하며 유럽 유탄기유 시장과 업계 동향 등에 대해서 긴밀히 소통했다. 고객들은 리셉션 전반에 대해 감사의 뜻과 만족감을 표하며 다음 번 행사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났다.

이번 행사는 세계적 선도기업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고객들에게 주시시키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우리회사는 리셉션을 통해 고객과 우애와 신뢰를 다지면서 잠재고객 발굴과 신규사업 개발의 가능성을 높여 시장을 선도해나갈 예정이다. 🌟



최고 역량 한데 모아

새롭게 도전합니다

국내영업본부 워크숍



2014년 이후 중장기 전략방향 이해 제고

2014년 국내영업본부 워크숍이 지난 2월 21~2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됐다. 올해 워크숍은 창립 이래 소매경질유 시장점유율 최고치인 20.4%를 달성한 2013년 성과를 격려하고, 이와 함께 회사 중장기 주요 정책 및 국내영업본부의 중장기 전략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신동열 부사장을 비롯해 국내영업본부 소속 각 부문장 및 팀리더, 지역본부장, 지사장, 파트리더 등 총 51명이 참석했다. 이와 더불어 수송 및 수급부문 등 부문장 및 팀리더, 실무자가 참석해 국내영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 및 전략방향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

신동열 부사장은 워크숍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판매량, 시장점유율, 계열주요소 수 및 광고 TOM(Top of Mind, 최초 상기도) 등 모든 분야에서 창사 이래 최고 성과를 시현한 것은 국내영업본부 모든 임직원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지난해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 국내영업본부가 설정한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회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우수사례 발표 세션으로 실질적인 노하우 공유

국내영업본부는 매년 초 임원·팀리더·지사장·파트리더 이상 임직원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해 회사 및 국내영업본부의 중장기 전략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당연도의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올해 워크숍에서는 2013년 성과우수지사의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세션을 새롭게 도입해 워크숍 참석자들로부터 이론적인 전략이 아닌 실제 영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노하우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내용은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연간 성과우수지사가 준비한 상세한 자료와 설명은 각 담당지역 및 거래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영업성공 사례를 담고 있어 참석자들의 깊은 관심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우수지사가 발표한 성공사례를 세밀히 살펴 각 지역시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값진 사례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발표자들에게 뜨거운 성원을 보냈다.

치열한 영업환경 속 새 도전을 향한 다짐

2014년 국내영업시장은 제반 환경의 악화로 어두운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우리회사의 영업환경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석유제품 수요 정체로 인해 매출 확대에 난항이 예상되고, 정부가 석유유통구조 개편 정책을 지속적

국내영업 중장기 전략방향과 회사 정책을 공유하는 국내영업본부 워크숍이 임원 및 각 부문장과 팀리더, 지역본부장·지사장·파트리더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임직원들은 올해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공유하며 새로운 도전을 다짐했다.

글 박성진(영업전략팀)
사진 전부순



으로 추진함에 따라 마케팅 정책 이행에 따른 성공여부를 선불리 평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정유사 간 판매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져 시장수성을 위한 각축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이 어려운 시장상황 속에서도 국내영업본부는 2014년 도전적인 목표

(Stretch Goal)를 설정하고 본부 역량을 결집한 최선의 노력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사에 대해 시상이 진행됐다. 연간 최우수 성과지사로 안동지사와 강남·대구지사가 차례로 순위에 올랐고, 남양주지사는 클린앤스마일 서비스 시행

최우수지사로 광주지사와 공주지사는 「Clean & Smile 서비스」 시행 우수지사로 선정되어 상을 받았다. 또한 작년 4/4분기 성과우수지사로 공주·울산·인천·진주지사가, 성과개선지사로 구미지사가 선정돼 상패와 부상으로 업무활동비를 받았다. 





열정과 패기로 성공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2014 생산직 신입사원

회사의 미래이자 기둥이 될 신입사원 37명이 본사 집합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2월 3일 입소해 9일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사원들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회사 발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다졌다.



꿈이 생생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회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전문대졸 신입사원들이 9일간의 본사 합숙교육을 마쳤다. 그동안 신입사원들은 회사의 비전과 사업영역 정보, 다양한 제도 및 현장 체험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현장 근무에 투입될 만반의 준비를 다졌다. 2월 13일 수료식에서 이영렬 상무는 “앞으로 우리회사가 정유업계를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확고한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신입사원 여러분도 열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우리회사는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영철학 및 운영방식이 좋다고 해도 구성원들이 힘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신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다. 따라서 각자 업무에서 전문성을 갖도록 노력해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 직장에서 일류가 되겠습니다

수료식에서는 신입사원들이 직접 촬영하고 완성한 퍼포먼스 영상물을 시연하는 자리를 가졌다. 재기 넘치는 아이디어가 담긴 영상물을 보면서 임직원과 신입사원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영상물 시연 다음에는 교육 성적이 뛰어나고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에 힘쓴 신입사원들에게 성적우수상과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영렬 상무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가능성을 보았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진화한다면 회사는 물론 여러분의 미래 또한 밝을 것이다. 기본에 충실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저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신입사원들은 회사의 일원으로서 선배·동기들과 함께 정유업계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발휘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



“
신입사원 37명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성공에 대한
확신을 다졌다.
”



MINI INTERVIEW

- ① 입사 동기
- ② 포부와 각오

“뜨거운
가슴을 가진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박성진

- ① 고교 때부터 에스-오일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능력을 키워 꼭 입사하고 싶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전공도 관련 분야를 택했고 꾸준히 노력해온 끝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생각했습니다.
- ② 노력한 만큼 대가를 주는 곳이 바로 우리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일을 배우며 익히고, 이왕 산에 올랐으니 정상까지 내딛어보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사
발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이갑상

- ① 온산산업단지 근처의 한 회사를 다니면서 에스-오일을 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라고 생각하며 심기일전한 덕분에 조금 늦게나마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 ② 신규 프로젝트에 참여해 성취감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항상 막내라는 각오로 우리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초심 잃지 않는 열정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신입사원 37명이 찰랑찰랑한 목소리로 화이팅을 외친다.
교육 프로그램으로 당당한 회사 일원이 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신입사원에게
물었습니다!

· 목표와 포부

무한
가능성을
활짝 펼쳐라!

“도전”

이상은 높게 가슴은 뜨겁게



김용수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
는 회사처럼 끊임없
이 성장하겠습니다.



고병석

항상 능동적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앞줄 왼쪽부터 김지윤, 김민준, 김범준

뒷줄 왼쪽부터 김용수, 고병석, 김중천, 김대원, 김연낙, 김민욱, 김재연



김중천

신규 프로젝트와 함께
출발하는 신입사원
으로서 회사의 도약에
밀거름이 되겠습니다.



김대원

항상 초심을 생각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김연낙

‘세계최고’에서 ‘세계
유일’로 달려가는
에쓰-오일이란
자부심을 갖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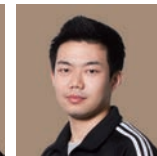
김민욱

회사와 같이 성장하
겠다는 열정으로 임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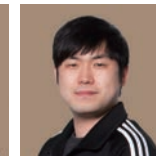
김재연

선배님을 밑에서 열
심히 배우고 일하도
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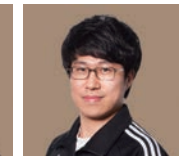
김지윤

마음으로 일하는
에쓰-오일인(人)이
되자!



김민준

현장의 안전이 곧
가정의 안정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
습니다.



김범준

에쓰-오일인(人)으로서
항상 웃는 전문 장치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박성진

하나부터 열까지 나의 경험으로 만들어서 천만인사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신철호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최고의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변민석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 인정받는 포맨이 되겠습니다.



박정훈

선배님들의 경험과 조언을 가슴으로 새겨 회사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박도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손영득

말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모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심범식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후배들에게 친절한 선배가 되겠습니다.



김학훈

익숙함 때문에 나태해지지 않는, 항상 배우는 자세를 지키겠습니다.



박철웅

최고가 되기보다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패기”

이제 우리가 주인공

열정으로
당당하게
맞서라!



앞줄 왼쪽부터 신철호, 박정훈, 손영득, 김학훈, 박철웅
뒷줄 왼쪽부터 박성진, 변민석, 박도현, 심범식

앞줄 왼쪽부터 이호준, 원기연, 이갑상
뒷줄 왼쪽부터 정우재, 정지환, 이건오, 이동운, 정도현, 이준우

최고 향해
힘차게
도약한다!



“열정”

정상을 향한 발돋움



정우재

에쓰-오일인(人)이라
는 자부심을 갖고
모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지환

무엇을 하든 선봉에
서겠다는 마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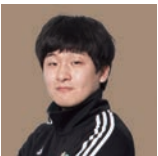
이건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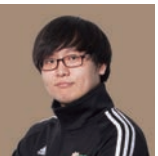
이동운

항상 최고가 되자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
습니다.



정도현

회사의 발전을
목표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이준우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이호준

회사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힘쓰는,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원기연

더욱 빛이 날 수
있도록 보석을 닦는
애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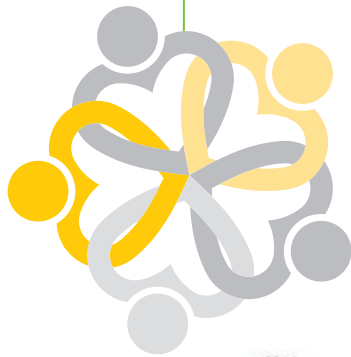
이갑상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드림팀

마주잡은 손으로
미래 일군다



조치현

인생의 리셋버튼을
눌렀습니다. 작동하
겠습니다.



한상욱

항상 긍정적인 마인
드로 무엇이든지 잘
해내겠습니다.



허헌

회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
습니다.



최영란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가족이 되겠습
니다.



최치연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태진

포기란 노력하지
않은 자의 변명일 뿐.
도전적인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운

언제나 노력하는
부지런한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황용민

꿈이 실현된 만큼
꿈의 직장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신입
사원이 되겠습니다.



정찬형

지금 가지고 있는 마
음이 퇴직할 때까지
변치 않도록 하겠습
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치현, 한상욱, 허헌,
최영란, 최치연, 황태진, 조정운, 황용민, 정찬형

S-OIL NEWS



마곡 석유화학기술센터 건립

우리회사가 서울 마곡산업단지에 국내외 최고 수준의 석유화학 기술센터를 세운다. 나 세르 알 마하서 CEO는 2월 13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마곡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만9천99㎡ 면적의 부지에 석유화학기술센터(Technical Service & Development Center)를 건립하기로 했다. 우리회사는 정유 및 석유화학하류부문 사업의 핵심역량인 R&D 기능 강화를 위해 석유화학기술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고도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 기초유분을 이용해

고부가가치의 석유화학소재 관련 기술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마하서 CEO는 "마곡 석유화학기술센터 건립으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성공을 이끌고 석유화학 하류부문사업 진출에 필수 핵심 역량인 R&D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제·학문·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우수한 R&D 활동 기반을 활용해 국내외 최고 수준의 석유화학소재 분야 연구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roup II 윤활기유 호주 저장판매 개시

우리회사가 이달부터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에서 우리 윤활기유 브랜드 중 Group II 제품인 'Super-31'과 'Super-96'의 저장판매를 개시했다. 이보다 앞선 1월 27일 우리회사는 호주·뉴질랜드 시장에서 윤활기유 제품의 저장판매를 위해 호주 ASCC(Australasian Solvents and Chemical Company)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으며, 1월 말 온산에서 출항한 첫 번째 제품 수송 선박이 2월 말 질롱 부근 저장탱크터미널에 도착해 하역을 마쳤다. 이에 따라 호주와 뉴질랜드 시장에서 한층 강화된 서비스와 접근성을 경쟁력으로 윤활기유 판매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지 고객의 요구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수송 수단을 마련한 가운데 온산공장에서도 직접 Group II·III 윤활기유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회사는 최고급 윤활기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호주에서 우리 윤활기유의 시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정비 공로자 CEO 특별 표창

정비 보수 관련한 제안과 그 성공적 실행에 기여한 정비 공로자 대상의 CEO 특별 표창 시상식이 지난 2월 13일 공장 신본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봉수 수석부사장은 CEO를 대신해 김규은 사위(예방정비 1과) 외 8명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사고 예방과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한 직원에 대해 즉각적인 표창을 시행해 사

기를 진작하고 전사적으로 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게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상식을 통해 수소 누출 수리에 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공로자들이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구도일 패밀리 1.1.1 시즌 2 시행

‘구도일 패밀리’ 멤버십카드 출시에 맞춰 지난해 9월 시행한 ‘1·1·1 주유비 리워드’ 캠페인이 두 번째 시즌으로 이어진다. 최대 1년 주유비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1·1·1 주유비 리워드’ 시즌Ⅱ 캠페인은 3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지속된다. 전국 계열주유소·충전소에서 3만원 이상 주유 시 즉석에서 보너스카드 영수증을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추첨으로 1년, 1개월, 1회 주유비 등 최대 300만 포인트를 지급하며, 특히 3천원 상당 모바일주유권의 경우 행운의 기회를 대폭 늘려 매달 당첨자 3만명을 뽑는다. 당첨되지 않은 고객도 또 다른 행운을 기대할 수 있다. 매달 미당첨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추첨을 진행해 1천명 고객에게 구도일 열쇠고리 세트를 증정한다.

임원동정

승진

3.1 이영백 상무(정비부문 담당)→전무(RELIABILITY/생산기획본부장) 강선재 상무(정유/유회생산공장장)→전무(정유/유회생산공장장) 김용연 상무(생산지원부문 담당)→전무(생산지원부문 담당(대행)) 김서일 부장(생산최적화팀 리더)→상무보(연구개발부문 담당) 장순철 부장에너지기술/관리팀리더)→상무보(기술부문 담당)

보직변경

3.1 류경표 부사장(생산지원본부장)→부사장(운영총괄 보좌역) 윤우영 전무(생산기획부문 담당)→전무(기술본부장) 김형배 상무(기술부문 담당) 겸 RUC Vice PM)→공정혁신/UPGRADING부문 담당 겸 RUC Vice PM 김용보 상무보(제품출하부장)→상무보(설비관리부문 담당) 송찬주 상무보(연구개발부문 담당)→상무보(생산기획부문 담당)

퇴임 및 상근고문 위촉

3.1 임덕순 부사장(정비/기술본부장)→상근고문

인사동정

팀리더 대행 임명

3.1 김성호(전문차장,안전보건부 산업보건 과장)→안전보건부장(대행) 송성국(2급, 정유생산부 정유2과장)→제품출하부장(대행) 심환승(2급, 생산최적화팀)→생산최적화팀리더(대행) 이영기

(2급.분해공정부 RHDS공정과장)→분해공정부 장(대행) 이용춘(2급.Aromatics생산2부 PX생산 2과장)→석유화학공정팀리더(대행) 김병건(2급.에너지기술/관리팀 공정자동화파트리더)→공정자동화팀리더(대행) 홍성희(2급.생산조정팀)→이익 개선팀리더(대행)

파트리더 임명

3.1 정동석(전문부장갑사팀)→갑사팀(프로젝트파트리더) 박이홍(2급.영업전략팀)→영업전략팀 영업관리파트리더

보직과장 임명

3.1 이욱용(4급.정유공정부 정유공정과장)→정유생산부 정유2과장(대행) 조은찬(4급.정유공정부 정유공정과)→Aromatics생산2부 PX생산2과장(대행) 이강원(4급.정유공정부 송유/동력공정과)→정유공정부 송유/동력공정과장(대행) 문현용(4급.정유공정부 송유/동력공정과장(대행)→분해공정부 RHDS공부과장(대행) 양태성(4급.정유공정부 Aromatics 공정과)→분해공정부 HYC/LUBE공정과장(대행) 권길상(4급.분해공정부 RHDS공정과)→분해공정부 RFCC공정과 장(대행) 정동건(3급.정유공정부 Aromatics공정과)→공정Upgrading추진부 정유공정Upgrading과장 허만구(4급.분해공정부 HYC/LUBE공정과장(대행)→공정Upgrading추진부 HOU혁신1과장(대행) 한민수(3급.분해공정부 RFCC공정과)→공정Upgrading추진부 HOU혁신2과장

보직변경

2.28 백창용(2급.신용관리팀)→네트워크강화팀 윤원섭(5급.판매계획/분석팀)→기획분석팀

3.1 지진곤(1급.안전보건부)→안전관리팀리더 홍승표(1급.분해공정부)→공정Upgrading추진부장 해남현(2급.이익개선팀리더 대행)→에너지기술/관리팀리더(대행) 김용호(1급.조직문화팀리더)→복지후생팀리더 서경섭(1급.HR기획팀)→조직문화팀리더 이광동(5급.정유공정부 송유/동력공정과)→송유/동력공정과 파견)→정유공

정부 송유/동력공정과(정유/유회생산공장 파견) 백선희(4급.분해공정부 RHDS공정과)→분해공정부 RFCC공정과 김지홍(4급.정유공정부 Aromatics공정과) 김진혁 황대진 민홍식(5급.정유공정부 Aromatics공정과)→석유화학공정팀 최영철 이재찬(5급.정유공정부 Aromatics공정과)→Aromatics생산공장 파견)→석유화학공정팀(Aromatics생산공장 파견) 정경두(4급.정유공정부 정유공정과) 이승우 이석균(5급.정유공정부 정유공정과) 이재환(4급.정유공정부 Aromatics공정과) 이정민(5급.정유공정부 Aromatics공정과)→공정Upgrading추진부 정유공정Upgrading과 류희조 신현호(5급.분해공정부 HYC/LUBE공정과) 노지권(5급.정유공정부 Aromatics공정과)→공정Upgrading추진부 HOU혁신 1과 윤효성 김민희(4급.분해공정부 RFCC공정과) 석준철(5급.분해공정부 RFCC공정과)→공정Upgrading추진부 HOU혁신2과 여상길(3급.에너지기술/관리팀) 김보영 송원우(4급.에너지기술/관리팀) 허준보(운전직.에너지기술/관리팀)→공정자동화팀 이태희(2급. 안전보건부 안전기획과)→안전보건부 안전과장 겸 산업보건과장 김종선(2급.안전보건부 안전과장)→안전보건부 안전과 홍성길 김정수 박정훈(4급.안전보건부 안전기획과) 하준호 박준모(5급.안전보건부 안전기획과) 박기철 이동석 변희영 전동길 이영덕 서영식 박평수(4급.안전보건부 안전기획과)→안전관리팀 이충훈(4급.노사협력팀)→노사협력팀(본사 파견) 유진규(인사후생부 인사과)→노사협력팀 이재규(2급.노사협력팀 C&B최적화파트리더) 김진경(4급.노사협력팀) 김병주 정혜수 강미진(5급.노사협력팀) 서진영 이미수(일반사무직3급.노사협력팀)→복지후생팀 양해나(5급.리스크관리팀)→관리회계팀 김광윤(4급.분해1부 수소1과 선임계장)→분해1부 수소1과 이정재(4급.분해1부 수소1과 교대계장)→분해1부 수소1과 선임계장 류태산(4급.분해1부 수소1과)→분해1부 수소1과 교대계장 박종하(4급.제품운영부 제품운영1과 교대계장)→제품운영부 제품운영1과 이용인(4급.제품운영부 제품운영1과)→제품운영부 제품운영1과 교대계장 유용진(1급.용인지사장)→수도권지역본부장 보좌역 이영호(1급.대전

지사장)→용인지사장 김우홍(1급.구미지사장)→대전지사장 신동훈(2급.안동지사)→구미지사장

3.31 이종환(3급.싱가폴지사)→정유Light제품팀 김동인(4급.정유Light제품팀)→싱가폴지사

2014 생산직 신입사원 입사

2.3 고병석 김대원 김민욱 김민준 김범준 김연낙 김용수 김재연 김충현 김지윤 김학훈 박도현 박성진 박정훈 박철웅 변민석 손영득 신철호 심범식 원기연 이갑상 이건오 이동운 이준우 이호준 정도현 정우재 정지환 정찬형 조정윤 조치현 최영륜 최치연 한상욱 허현 황용민 황태진

정년퇴직

2.28 노근식(1급.정유/유회생산공정과장 보좌역) 박상호(2급.공주지사) 허태희(3급.강남지사)

퇴직

2.10 이성훈(5급.공무부 설계1과)

부음

2.7 유춘희(총무팀) 빙부
2.8 김인규(정유1과) 빙모
2.10 김병국(회계팀) 빙부
고이곤(탈황1과) 조모
2.12 이영준(유황1과) 조모
2.15 신창훈(계기2과) 모친
2.17 양상훈(네트워크개발팀) 빙부
2.18 박용순(수원지사) 빙부
2.22 노만섭(환경운영과) 빙모
2.24 이치환(총무과) 빙모
이정인(네트워크개발팀) 빙부
2.27 이병원(기획분석팀) 부친

결혼

2.22 권병일(보안과) 아들
2.23 구자현(고객개발마케팅팀)
3.8 박동근(직영주유소관리팀) 아들
3.9 이국록(Aromatics동력과)

9 Corporate Initiatives

- High margin portfolio through RUC and olefin investment
- Capacity expansion through overseas partnership
- On-going business innovation within core and beyond
- Brand market driven share gain in domestic market
- Overseas stable customer base expansion via partnership
- Global standard in SHE management

• Best-in-class operational excellence

- Strategic HR and mgmt. infra upgrade for performance drive
- Stakeholder communication enhancement



업계 최고 수준의
운영효율성 달성



뜨거운 열정과 굳은 포부를 품고 9가지 전사전략과제 중 'Best-in-class operational excellence(업계 최고 수준의 운영효율성 달성)'를 수행하며 회사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가는 '이익개선팀'을 소개합니다

모두를 위한 이익개선 관리 운영효율성 향상의 기초입니다

이익개선팀



최근 기업경영의 화두는 보유한 시설과 인력으로 최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얻는 데에 있다. 그래서 저마다 업무 프로세스와 공정 부분에서 다양한 개선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와 이익을 높이고자 총력을 다한다. 우리회사도 이익개선팀을 구성해 공장 운영효율성을 높여 이익을 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
이익개선팀은
9가지 전사전략과제 중
‘업계 최고 수준의 운영효율성 달성
(Best-in-class operational
excellence)’을 실천하기 위해
회사가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운영효율을 극대화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공 전략은 각기 다르긴 해도 대략적으로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효율적인 공정 수행을 통해 생산해내고 고객에게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 경쟁력 있는 상품성과 생산성을 얻기 위해 요소요소마다 체계적인 관리와 꾸준한 개선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 토요타 자동차가 2008년 자동차 판매 세계 1위를 달성한 이래 2012년 잠시 빼앗겼던 순위 자리를 1년 만에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공정 과정의 A부터 Z까지 체질 개선, 구조 개선에 힘썼던 덕분이었다. 허남현 팀리더는 “기업의 제일 목적이 이익 창출이므로 전 공정에서 개선할 만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한다.

“공정을 개선한다는 것은 보유한 시설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들의 생산단가를 줄이고 수율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일이지요.”

예를 들어 어느 장치에서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것,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것, 운전 효율을 제고하는 것 등을 통해 기업의 이윤을 확보하는 일 이 이익개선 활동의 일종이다. 정의하자면 이익이

될 수 있는 요소는 늘이고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줄이는 것이 이익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익개선팀은 공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개선 활동, 업무 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부서입니다. 4명의 작은 조직이지만 전 공정에 관심을 기울이며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자세’로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익개선 활동의 객관적 기준 만들다

이익개선팀이 신설된 것은 2013년 6월로,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다. 하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익개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모두 허 팀리더와 팀원들이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다한 덕분이다.

“이전의 이익개선 활동은 체계적인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활동 항목 기준도 엔지니어마다 조금씩 달라 혼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보다 객관적인 항목 기준을 만드는 일에 우선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한 가지 예로 원유제품가격 항목의 경우 우리회사의 가격과 현재 시장가격, 유수기관 예측 가격 등 저마다 기준이 달라 파악이 어려웠던 것이, 현재 시장가격 3개월 치를 집계한 것을 기준 삼아 이익개선 계획 및 실적을 데이터화 하도록 했다.



덕분에 각 공정별로 정확한 비교가 가능해졌다. 이익개선팀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일 중에는 타사에 대한 기술적 서비스 지원 업무를 들 수 있다. 지난해 사우디 아람코 자회사의 PX공장 시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회사 직원이 파견됐다. 지난 2011년 제2 아로마틱 PX공장 시운전을 세계 최초로 보름만에 성공한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함이었다.

“아람코 자회사의 요청으로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명의 운전원과 3명의 계기원, 2명의 검사원과 1명의 감독 등 총 10명이 파견됐습니다. 파견기간 동안 우리회사 운전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성공적인 시운전에 기여해 우리회사의 운전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죠.”

“
이익개선팀은
운영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장 이익개선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총괄합니다.”

젊고 스마트한 조직의 힘

이익개선팀은 회사의 9가지 전사전략과제 중 ‘업계 최고 수준의 운영효율성 달성(Best-in-class operational excellence)’을 실천하는 부서이다. 그동안 공장의 개선 활동을 관리하면서 부서 자체적으로도 업무 개선을 위해 부단히 힘써왔다. “공장 내에서 가장 작은 조직이지요. 지금까지 수행해온 업무를 발전시키고 역량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데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익개선팀의 강점이라면 무엇보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짜임새 있는 팀워크이다. 인원이 적은 이유도 있겠지만 업무가 주어지면 수행 계획과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평균적인 나이도 젊기에 “생각도 젊고 긍정적인 데다가 눈치도 빨라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낸다”라며 자랑하는 허팀리더이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팀은 화식 장소 정할 때도 걱정이 없어요. 당일 저녁에 갑작스럽게 화식을 하게 되더라도 4명이니 거의 예약할 필요가 없거든요. 참석율도 빠지는 사람 없이 항상 100%입니다.”

그 말 속에 이익개선팀 팀원들의 밝은 분위기와 충천한 사기가 여실히 느껴지는 듯하다. 공장 곳곳의 이익개선 활동을 관리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 운영이란 막중한 과업을 수행하는 이익개선팀. 이들의 노력이 더해질 때마다 우리회사의 미래 모습은 점점 더 밝아진다. 🌟

MINI INTERVIEW



허남현 팀리더

이익개선팀의 강점

무엇보다 젊고 스마트하며 어떤 일이든 거침없이 해냅니다. 서로 업무협조도 잘 이루어지고 조직에 대한 애정도 큼니다. 업무 능력과 열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 능력 또한 우수하죠. 무슨 일이든 잘한다는 ‘무처부당(無處不當)’이란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앞으로의 목표 및 하고 싶은 말

지금의 조직력과 사기를 유지하면서 업무 역량을 더 강화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팀원이 들어온다면 전 부서의 이익개선 활동이 연계되어 있는 만큼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운영효율 및 경제성 확보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권합니다. 엔지니어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정 과정의 전체 그림을 그려보는 매리트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3월 1일부 인사명령에 따라 홍성희 이익개선팀리더로 구성원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

인사이동으로 3월부터
새로운 팀리더가 합류하는데,
지금껏 잘 해왔듯 좋은 결과들을
도출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



허 남 현
팀리더



최 준 걸
사우

이익개선팀 사우들을 소개합니다



황 인 재
사우



이 현 경
사우

“

올해는 꼭
체중조절 프로젝트에
성공해보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회식은
한우가 어떨까요?

”

“

사회 첫걸음이라
항상 긴장감을 놓을 수 없네요.
어떻게 하면 빨리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

텔레비전에 ‘구도일’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SBS 수목드라마 <쓰리 데이즈>
구도일 키홀더 PPL 시행

강주혜
—
고객개발마케팅팀

SBS 인기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후속으로 3월 5일부터 방영되는 <쓰리 데이즈>를 통해 ‘구도일 메탈 키홀더’가 스토리의 핵심 실마리로 노출됩니다. 드라마 <쓰리 데이즈>는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문 장르라는 점과 박유천, 손현주 등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올해 가장 기대되는 드라마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싸인>, <유령> 등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 특유의 탄탄하고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구성력은 배우들의 연기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주목 받는 드라마에 ‘구도일 메탈 키홀더’가 총 3부에 걸쳐 극중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자 주인공 보원(박하선)은 순경이 되기 전에 S-OIL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 그 때 캐릭터 구도일을 좋아하게 된 보원(박하선)은 구도일 메탈 키홀더를 분신처럼 가지고 다니며, 이런 사실은 남자 주인공 태경(박유천)이 납치된 보원(박하선)을 찾는데 있어 실마리가 된다. 키홀더가 그녀의 소지품임을 알고 있었던 태경(박유천)은 그녀의 행방을 찾게 되는데, 즉 키홀더가 그녀의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것이다.』

이번 드라마 간접광고(PPL)를 통해 ‘구도일 메탈 키홀더’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 상품성과 소유 가치를 높이고, 우리 계열 주유소·충전소로 방문을 유도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내외 채널을 통한 홍보와 더불어 회사 플랫폼(포인트몰·마일리지몰)에서 판매를 병행해 그 파급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드라마 인기에 비례해 ‘구도일 메탈 키홀더’가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소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폭설 피해 우리의 관심이 치료약입니다

강원도 지역 폭설 피해
제설 지원

김경민
—
인력개발팀 부



올해 신입사원으로서 소매관리팀에서 직무훈련(OUT)을 받으면서 강원지역 폭설소식과 더불어 강릉지사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주유소 제설작업을 지원했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강원·영동지역에서는 2월 6일부터 14일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눈이 내려 기상 관측 이래 최장기 폭설 기록을 남겼습니다. 실제 지면에 쌓인 눈의 최대 깊이를 뜻하는 최심 적설이 110cm에 달했고, 이는 1969년 최장기 적설 109.7cm를 넘는 적설량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 강원도 일대의 우리 계열주유소들도 제설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우리 회사는 제설작업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하는 뜻에서 연화칼슘 150포대를 영동지역 계열주유소 50개소에 지원했습니다. 폭설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 2월 15일에는 강릉지사 직원들이 두 팔을 걷어 붙이고 주유원이 부족해 제설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유소와 주유원이 없는 셀프 주유소에 직접 나가 제설작업을 함께하며 어려움을 나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손을 모으고 땀을 흘리면 우리를 향한 고객 신뢰도 커진다는 사실을 강릉지사 직원분의 노력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직무훈련 기간 업무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느끼고 배우는 경험이 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폭설로 인해 줄어든 관광객이 영동의 영업현장을 더욱 힘들게 하는 복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선 영업현장에서 보내온 아래 사연을 보면 어려움에 처한 지역이라도 관광을 하러 가는 것이 지역이웃에게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혔던 길이 뚫리고 복구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3월에 모두 강원 영동지역으로 여행가는 것은 어떨까요. 일대를 여행하는 것만으로 우리 계열주유소 가족과 현지 주민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10여 일 이상 엄청난 눈이 쏟아졌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주요 도심노선은 그런대로 발 빠르게 제설이 됐지만 지역 내 식당, 의류상점, 숙박업소 등 관광지 상인들 모두 기 막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 세기에 있을까 말까 하는 천재지변이기에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듯 방치된다면 지역 경제가 휘청거릴 것 같습니다. 모두들 눈 덮인 이곳 터전에 생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들 제설하는데 나들이 하는 것이 염치없다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강원·영동 일대를 많이 찾아오셨으면 합니다. 동해안 바닷가, 경포대, 설악산 등 멋진 구경하시고, 이왕이면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잠도 주무시고 말입니다. 되돌아가는 길에 우리 계열주유소에 들러 기름 가득 채워 가면 그게 지역주민들 도와주는 일이 됩니다. 주변 지인에게 많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철형(강릉지사)

02

FEBRUARY

머지않은 봄날

‘햇살나눔’이 희망을 키웁니다

2014년 2월 전사 각 단위 햇살나눔

한파는 누그러졌지만 햇살나눔봉사단은 그늘진 응달에서 아직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찾아 부지런히 활동했다. 희망을 전하며 온정을 나눈 곳곳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다.

2014. 02.

08



본사 정기봉사팀

봉사팀은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사랑의 빵 만들기'를 진행하면서 인근 독거 노인 가정과 아동생활시설에 빵을 전달했다.



12

울산지사

봉사단은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결식아동 18가구에 도시락을 배달했다.



가족사진촬영봉사팀

희귀질환 어린이 가족을 초청한 봉사팀은 가족사진을 촬영하면서 구도일 인형과 패밀리룩 등을 전달하고, 액자와 포토북을 제작했다.



15

분해3부

봉사단은 해밀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시설 점검과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등 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



분해1부

울산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한 봉사단은 시설 내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 작업을 실시했다.



계전부

봉사단은 우리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아이들과 체육활동을 함께하고 도시락을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재미와 감동 모두 잡은 최고의 공연이었습니다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공연

우리회사가 문화예술&나눔 캠페인을 통해 고객들이 가까운 곳에서 공연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객석을 가득 매운 관객들은 수준 높은 공연을 보면서 감동과 재미를 모두 얻었다며 큰 박수를 보냈다.

2월 27일 오후 7시에 본사 3층 대강당에서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공연이 열렸다. 이번 공연 작품은 뮤지컬 <당신만이>로,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현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큰 선물이었다.

공연 30분 전에 이미 객석의 반이 차고, 대강당 로비 한 칸에 마련된 주먹밥과 음료수를 들고 일행과 덕담을 나누며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온 주부도 많았지만 40~50대는 되어 보이는 부부들이 자주 눈에 띄는 것도 여느 공연과 다른 점이었다. 공연 작품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서 사전 정보를 얻는 젊은 부부도 보였다.

올 봄이 결혼 20주년이라는 김주형·황혜영 부부(서울시 마포구 새창로)는 “딸이 대학로에서 이 공연을 보고 꼭 한 번 봐야한다고 말했던 것이 생각나 이번 기회에 보려고 왔다”며 “우리 같은 중년 부부가 보면 많이 공감할 수 있다고 해서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인근 직장에서 퇴근하고 함께 왔다는 임윤철·이수정 부부(서울시 용산구 원효로)는 “서로 처녀·총각 시절 데이트할 때는 문화 공연을 보러 다니며 알콩달콩하게 사귀었는데, 결혼한 다음부터에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어 아쉬웠다”면서 “부부 관계에 대해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내용라고 하니 재미있게 보면서 추억도 만들고, 옛날처럼 자주 공연도 보게 됐으면 좋겠다”며 두 손을 꼭 잡았다.

최고의 감동 느낀 최고의 무대

시간이 되자 곧 배우들이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관객들의 우렁찬 박수와 함께 공연의 막이 올랐다. 배우들의 말과 몸짓, 가창에 관객들은 차츰차츰 공연에 집중했다.

뮤지컬 <당신만이>는 대학로 공연가에서 2011년 처음 무대에 오른 이래 꾸준히 공연을 이어오며 관객몰이를 하고 있는 작품이다. 어느 경사도 부부 결혼 5년 차부터 37년 차까지의 세월을 그린 이 작품은 긴 세월 부부로 살아온 모습을 통해 보통 부부들의 사는 이야기를 옴니버스식으로 풀어낸다. 지극히 평범한 부부이지만 크고 작은 일을 함께 겪고 고민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모습을 보며 가슴 찡한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다. 특히 배우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가요로 이루어져 있어 40~50대 중년은 물론 20~30대 젊은 관객도 즐겁게





따라 부를 수 있게 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연을 보고난 뒤 이지선 씨(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는 “젊은 부부는 그들의 부모를 떠올리며 자신들의 미래를 그려보고, 중년 부부는 남은 인생을 잔잔히 그려 볼 수 있는 작품 같다”고 말했다. 예닐곱 살 또래의 자녀를 가진 친구들과 방문했다는 그는 “보통 부부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코믹하지만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어 눈시울이 퉁퉁 부었다”며 좋은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준 우리회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가까이 만나보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

뮤지컬 <당신만이> 공연과 같이 우리회사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문화예술&나눔 캠페인을 개최해오고 있다. 공연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작품을 대강당 무대에 올리면서 모든 공연을 관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 직장인들의 큰 관심을 불러 모으며 지속적으로 매진사례를 이어왔다. 우리회사는 문화예술&나눔 캠페인을 통해 문화예술과 단절된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만나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웃음과 감동의
공연을 보며 문화예술이
보다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도심에서 만끽하는 문화예술의 향기!

품격 높은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무료공연이 관객을 기다립니다.

일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에쓰-오일 본사 사옥 대강당 또는 공향철도 공덕역 광장

문의 운영지원팀 02-3772-5064

따스한 바람처럼 세상을 녹이는 햇살나눔입니다

햇살나눔 활동 이모저모

햇살나눔봉사단이 도움이 필요한 곳곳을 찾아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기부와 자원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햇살나눔의 이야기를 모았다.



아이들과 함께한 행복한 체육대회

글 권영규(전기과)



계전부가 2월 22일 올해 봉사활동의 기지개를 켜었습니다. 우리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겁니다. 계전부는 지난해 햇살나눔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결연한 우리지역아동센터와 지속적으로 좋은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올해는 아직 봉사프로그램 공모전을 치르기 전이지만 그동안 정답게 지내온 어린이들을 찾아가 기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날 만남의 테마는 체육활동으로 정했습니다. 접전이 펼쳐진 현장은 무거초등학교 운동장! 이상무 사우(계기1과)를 비롯해 권영규·박준택·백경민·박남규 사우(전기과)등 5명 봉사단은 어린이들과 다채로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훌라후프 돌리기와 제기차기, 커플 줄넘기, 2인 3각 달리기, 공주머니 받기 등 팀 대결로 각축이 벌어졌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릴레이로 펼친 팀 대항전에 몰입해 뜨거운 땀을 흘렸습니다. 최종경기는 파구! 흙먼지 날리며 그라운드를 돌아 들어오는 자기 팀 주자를 향해 응원의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경기를 마친 뒤에는 아동센터에서 맛있는 도시락으로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팀 대결로 운동장을 누빈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주한 식탁에도 한 번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올해 봉사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봄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햇살나눔이 만드는 희망의 보금자리

글 신영철(운영지원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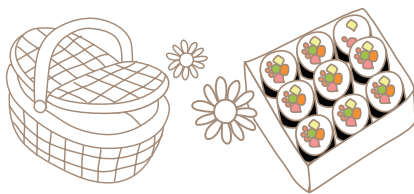
우리회사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 화재피해를 입은 이웃을 위해 복구 지원에 관한 후원금을 쾌척했다. 2월 20일 열린 후원금 전달식에서 정 백조 상무는 회사를 대표해 1억 원 후원의 뜻을 밝히고 올해 지원사업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우리회사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서울시소방재난본부와 '저소득 가정 화재피해복구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5년 동안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펼쳐왔다. 이로써 저소득가정 43가구가 화재피해를 입고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삶의 희망을 되찾았다. 이 나눔사업에는 수해 가정 선정에 협력한 일선 소방관과 운영위원, 복구현장의 자원봉사에 나선 의용소방대원,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집수리 전문 봉사자 등이 동참해 시너지를 내고 있다.



사랑과 정성 가득한 도시락 배달

글 이정현(울산지사)



울산중구사회복지관은 중구지역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편부모 또는 조부모와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락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한 이 나눔활동에 울산지사봉사단은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왔습니다. 현재는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일손이 가장 절실한 수요일을 봉사일로 정하고, 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패밀리데이를 이용해 매달 둘째 주에 현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사단은 정신적으로 한창 민감한 성장기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많은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과하거나 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인근 지역의 달동네 상황도 그 중 하나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어린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주위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울산지사봉사단은 따뜻한 도시락을 전하고 전달 배달된 도시락을 수거해오며 더욱 적극적으로 햇살나눔을 펼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품질에 대한 확신이 고객 믿음으로 켜켜이 쌓입니다

경북 칠곡 대원주유소



2001년 3월 처음 문을 열고 2007년에 우리 계열주유소가 된 대원주유소는 이기완 대표의 집념과 애정이 서린 곳이다. 경상북도 칠곡군의 토박이로 오랫동안 지역사회와 동고동락해온 그에게 대원주유소는 30년 주유소 운영 경력의 결과물에 다를 아니다.

◆ 우리가 바로 지역 대표 주유소!

대원주유소는 지역에 연고를 둔 만큼 단골고객과 고정 거래처가 많다. 지역발전에 앞장서며 묵심 있게 주유소 한우물을 판 그이기에 믿고 맡기는 고객들이 많다.

“화물트럭 비중이 20~30% 정도 됩니다. 관광버스, 통학버스도 그 정도고요. 승용차 비중도 비슷합니다. 어느 한 차종의 비율이 도드라지게 높지 않다는 것이 어쩌면 룰런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까요?”

대원주유소는 인근 주유소보다 가격이 높은 편이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한 곳을 찾기 마련인데, 이런 가격 방침을 고수해도 고객은 대원주유소를 찾는다.

“오랜 기간 주유소 운영을 하다 보니 우리 주유소가 지역을 대표하게 되었다고 할까요, 주위 주유소들이 우리의 가격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물론 작심한다면 가격 경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살깎기에 불과할 것이고, 또 크지 않은 한 지역에 살면서 정당하게 경쟁해야 하지 않을까요? 적절한 이윤이 생겨야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대표는 주유소의 면적(약 3천 평)을 크게 잡아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량이 이용하기 쉽도록 하고, 운영 방식도 셀프 주유소를 기본으로 하되 직원들이 퇴근한 다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도

자가 주유를 할 수 있도록 해 고객 접근도를 높였다. 대형차량을 위한 전용 세차기도 도입해 눈이나 비가 온 다음날이면 세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행렬이 길게 이어질 정도이다. 이런 고객들에게 에쓰-오일의 품질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필수이다. 이 대표는 “에쓰-오일이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름 좋기로 알려져 있고, 저 역시 품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판매한다”고 말한다.

◆ 좋은 기름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겠습니다

대원주유소는 이 대표를 포함해 다섯 명이 근무한다. 이 중에는 그의 아들 이준용 씨도 있다. 어려서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는 아버지를 보고 배우며 사업을 도운지 벌써 3년 차가 됐다.

“서글서글한 성격으로 고객을 대하는 모습이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물여덟 젊은 나이지만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느껴져요.”

앞으로 오래도록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받고,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싶다는 이 대표, 좋은 기름을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어 나날이 번창해가는 주유소로 인정받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다.

“뛰어난 품질, 최고의 서비스로 주유소 업계를 이끄는 리딩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이 기 완 대표

대원주유소의 장점은

부지가 넓어 대형트럭, 대형버스가 쉽게 들어올 수 있고 대형차량을 위한 세차기가 마련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는 직원이 상주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셀프주유소로 운영되는 24시간 체제라 연중무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전략은

품질 좋고 연비 뛰어난 에쓰-오일을 믿고 찾아오는 고객에게 서비스로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셀프 주유기를 사용하는 것이 낯선 고객은 친절하게 돕고, 세차권이 나 티슈·생수 등 사은품도 챙겨드립니다. 또 보너스카드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원주유소



경부고속도로 왜관IC의 진출로인 4번 국도와 구미-고성을 잇는 33번 국도가 만나는 지점에 있다. 왜관산업단지와 기산농공단지가 지척에 있어 화물차 고객도 많지만, 대형버스 고객도 적지 않다. 지역 토박이로 30년 넘게 주유소를 운영해오며 주민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은 대표자의 ‘진심’이 강점이다.

경북 칠곡군 기산면 칠곡대로 1281(죽전리 104-37)

☎ 054-973-5151



사랑으로 만든 붕어빵 같은 가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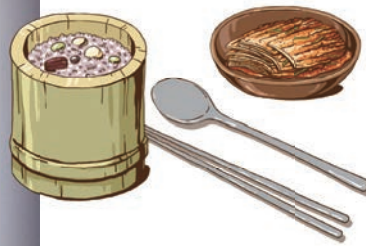
해상출하과 이경삼 사우 가족



“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그림 재료이다”



이경삼 사우가 가족들을 위해 이벤트를 신청했다.
모처럼만에 주위 경관이 수려한 한정식집에 가족이 모였다.
평소에 조금은 무뚝뚝한 아빠였기에 무척 놀랐다는 선영·선혜 자매는
“아빠가 이런 이벤트를 열어줄 줄은 몰랐다”며 반긴다.



이경삼 사우 가족이 방 안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창밖에는 작은 호수가 있고 멀리 가지산과 상문산이 바라보이는 방이다. “경치가 좋아 날씨가 따뜻해지면 한 번 더 와야겠네!” 아내의 말에 이경삼 사우가 방긋 웃는다.

큰 딸 선영은 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아동 대상 미술교육을 하고 있고, 작은 딸 선혜는 물리치료를 전공하고 지금은 정형외과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자연스레 가르치는 아이들이며 이제 갓 시작한 직장생활 이야기들이 주제가 된다. 서로 재미난 에피소드를 털어놓으며 웃음꽃을 피우고, 만만치 않은 사회 적응기에 누군가의 한숨이 새어나오자 이 사우가 한마디 거든다.

“우리 딸들이 모두 원하는 분야에 취직을 하고 첫 단추를 잘 꿰었지. 이제는 열정을 다해 노력하는 일이 남았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신경 쓰이겠지만 끈기를 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윽고 한두 가지씩 음식이 차례로 나오고, 맛갈스러운 상차림에 한결같이 만족스럽다. 단호박닭고기냉채며 새우튀김, 메밀전 등 입맛에 맞다고 칭찬일색이다. 덕분에 이 사우도 센스 있는 아빠로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평소에 가족끼리 식사를 함께하려고 노력하는데, 더욱 분발해야겠는걸요.”



가족의 환한 얼굴을
마주 대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

화가 둘에 평론가 둘인 그림 같은 가족

외식에 앞서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는 아내와 자매들. 정작 이 사우는 작은 스케치북과 펜, 물감 등 화구를 챙기느라 여념이 없었다. 비단 이 날만 아니라 외출할 일이 있으면 항상 간단한 스케치 도구를 챙겨 들고 나선다. 개인전 3회에 다수의 입상경력은 물론 한국미술협회 회원자격을 갖춘 당당한 화가이다.

“어려서부터 화가를 꿈꿨지만 가정형편 때문에 정식으로 미술을 배우지 못했어요. 회사에 입사하고 그림 동호회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꿈을 키우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 정식으로 배우게 됐죠.”

처음에는 ‘조금 하다 말겠지’ 싶었던 아내의 이제 반쯤은 미술평론가가 되었고, 선영은 아빠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인지 서양화가 됐다. 선혜 역시 미술에 소질이 있어 곧잘 그의 그림을 놓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준다.

“아빠는 하나에 집중해 매진하는 걸 좋아해요. 화가가 되어 열심히 작품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그런 집념을 배우고 싶어요.”

서로에게 힐링 되는 가족이 되자

이경삼 사우 부부는 서로 앞집과 뒷집에 살던 인연으로 만났다. 당시 부산 대학교 근처에서 손 한 번 잡아본 것이 다였을 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결혼했다. 첫째 딸을 낳고 둘째 딸이 태어날 때 거꾸로 세상에 나올 뻔한 일도 있었고, 키우면서 때때로 ‘갈지마요’(무조건 밀어 부치거나 밀고 나가는 것을 뜻하는 경상도 사투리) 투정을 부릴 때 여러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지만, 자매들은 부부를 닮아 착하고 배려심 깊은 성격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어느덧 시집보낼 나이가 됐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아려오긴 해

도 잘 성장해준 딸들이 예쁘고 사랑스럽다.

“가족끼리 밖에 나가면 ‘붕어빵 가족’ 같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서로 닮은 구석이 많다는 뜻이겠죠. 앞으로 서로 배려하면서 부족함은 채워주고 넘치는 것은 나눠주며 살고 싶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서로를 만날 때 언제든지 힐링이 된다면 것처럼 좋은 가족이 또 있을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되고 싶어요.” 

인생의 동반자 아내에게...

그동안 뒷바라지 해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제 당신도 나이가 50줄에 들어왔으니 건강도 챙기고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아이들도 이제 결혼 적령기이니 자주 대화하고 조언해주면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줍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남편에게...

언제 올까 까마득하다 싶었는데 이제 회사생활이 몇 년 안 남았네요.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퇴직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고, 취미생활인 그림에 너무 치중하지는 말고요.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누구보다 믿음직한 아내에게...

올해도 벌써 3월이네요. 아빠와 많이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연초에 서로 관심사가 무엇인지 대화 많이 해보자는 약속 잊지 않았죠? 언제까지나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외식 이벤트에 사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신청 문의 sabo@s-oil.com

한결 같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김현제

항상 행복하게 해줄게요.
아프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늙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요.
사랑합니다.

김지윤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응원해주고
힘이 돼주는 든든한
서로의 편이 되어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둘 다 늦은 시기에 대학교 진학을 했어요. 2009년에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서로를 처음 봤습니다. 그때 남편은 2학년이었고요. 화학 공부로 고군분투하는 저를 오빠처럼 도와줬습니다. 유치원생 가르치듯 제 눈높이에 맞춰 알려주고, 과제나 실험도 도와주고요. 아플 땐 강의실 앞에서 기다렸다고 약도 챙겨주더라고요. 그런 들킨함과 따뜻함에 끌린 것 같아요.

신랑은 인내심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함께 있으면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다른 데선 조용한 사람인데, 제 앞에서는 애교와 웃긴 표정으로 절 늘 웃게 해요. 다정하기도 합니다. 한창 연애했을 때, 울산에 눈이 많이 온 겨울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한 장이 왔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 나가서 아무 흔적 없는 눈 위에 '사랑해'라고 발자국으로 크게 찍어 보냈더라고요. 완전 감동이었죠. 학교 다닐 때는 12시간 이상을 함께 지내며 강의 듣고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했는데 입사하고 신랑이 교대근무를 하면서 같이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가끔 둘이 '학교 다닐 때가 좋았는데' 회상하곤 해요.

신랑은 부모님과 돈독한 외동아들이예요. 제가 연상인 탓에 혹여 반대에 부딪힐까 다소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몇 번 식사를 같이 하던 어느 날,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때까지 현제를 우리 아들로 키웠는데, 이젠 네 신랑 해라. 그 대신 네가 우리 딸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결혼식에서 아빠가 신랑에게 제 손을 넘겨주시며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신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워낙 엄격하신 아버지였고, 저는 무뚝뚝한 딸이다 보니 눈물이 안 날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손이 아버지 손을 놓는 순간 나지막한 그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지난날 굳이 말씀으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눈빛으로, 가슴으로 하였던 사랑한다는 표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아버지가 날 정말 많이, 더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셨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부부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모습으로 효도하고 싶어요. 🌻



옥천묘목축제 정보

일시 2014년 3월 29일 ~ 4월 5일(8일간)

주소 충북 옥천군 이원면 묘목로 62-32(간진리 108)
내비게이션에서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 또는 '간진리 108'을 검색한다. 서울에서 2시간, 부산에서 3시간, 광주에서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문의 옥천군청 산림복지과 (043-730-3591~3)
<http://festival.oc.go.kr/seedling>



봄별 따스한 날 나무 심으며 푸른 꿈 펼친다

충북 옥천 '묘목축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에 나무 심는 일은 옛날부터 중요하게 여긴 모양이다. 조선시대 정조대왕은 그의 어록인 『일록』에서 “나무는 이용 후생(利用厚生)의 밑천인데 벌목이 매일같이 행해져도 재배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다. 살림을 꾸려나가는 가정에서도 10년 계획으로는 나무를 심는 것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더구나 나라의 만 년을 내다보는 계획에 있어서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썼다. 『자산어보』를 쓴 정약전은 『송정사의』에서 “세 가지 환난(나무를 심지 않는 것, 나무를 꺾어 땔나무로 쓰는 것, 화전민이 불태우는 것)을 제거한다면, 도끼를 들고 날마다 숲에 들어가 나무를 한다 해도 재목이 너무 많아 쓸 수가 없을 지경일 것이다”라며 오늘날의 식목행사와 다르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생각해보면 식목 관련 일은 주로 나라에 의해 치밀하게 추진되었던 것 같다. 나무 가꾸기에 힘을 기울인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산림 면적이 1/3로 줄어든 데다 한국전쟁을 통해 파괴된 산림 피해가 엄청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동안 식목일 전후로 '국민식수기간'(3월 21일~4월 20일)을 정해 식목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 기간이면 국민이 나무를 심었고, 아마도 이때쯤 식목행사에 대한 추억을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64%로, 어느덧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네 번째로 넓은 비율이 됐다. 그래서일까 범국민적인 관심도도 상당히 줄어든 듯싶다.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식수운동은 관공서나 기관, 학교에서 단발적으로 이루어질 따름이다. 아직 산림을 심고 가꾸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은 빈약한 편이다. 해마다 산불과 재해 등으로 없어지는 산림 면적이 엄청나다는 것을 감안하면 나무 심기에 대한 필요성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산림청의 발표를 살펴보니 남부지방은 올해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중부지방은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북부지방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가 적기라고 한다. 이 기간에 가족과 함께, 동료와 함께 묘목을 구해 나무 심기에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

묘목도 얻고 축제도 보고, 일석이조의 축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묘목장이 있는 곳이 바로 충북 옥천군에 있는 이원마을이다. 1930년대부터 묘목생산을 시작했다는데 연간 1천290만주가 생산·유통되어 전국 최대를 자랑한다. 올해 벌써 14번째 묘목축제를 개최할 정도로 주민들의 자긍심이 되고 있다.

역사가 오랜 만큼 프로그램도 다양한데, 묘목 나누어주기, 묘목·수석분재 전시, 접목·묘목심기 시연 등을 비롯해 전통놀이와 다양한 만들기 체험, 그림그리기대회가 펼쳐진다. 모창가요제와 실버가요제도 인기가 높아 필자의 지인도 즉석에서 참가하기도 했다. 사실 전형적인 농업축재인 묘목축제가 자칫하면 지루해질 수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족체험 프로그램과 가요제, 콘서트, 묘목 증정 등 내실 있는 축제로 만들었다는 생각이다. 필자도 이번 축제기간 중에 가족을 데리고 방문해 묘목도 얻고 아이들과 함께 인근 동산에 나무를 심어 볼 작정이다. 꾸준히 나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의 꿈도 그만큼 커가기를 바란다.

옥천 이원마을은...

옥천은 골이 깊고 물이 맑으며 기름진 옥토를 이룬 고장이라는 뜻이다. 조선시대 후기 정치사상계를 이끌었던 우암 송시열 선생이 탄생한 충절의 고장이고, 흥미로운 고을설화가 많은 곳이라 곳곳마다 문화유산이 즐비하다.

일찍이 복숭아 등 각종 과일이 유명했는데, 특히 이원마을은 과수묘목 100여 가지 품종과 60여 종의 조경수 등 다양한 묘목을 생산·유통하는 묘목마을로 명성이 높았다. 연간 생산되는 각종 묘목은 농가 소득을 높여 풍요로운 농촌마을로 변모하게 했는데, 몇 해 전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강원도에 묘목을 무상 지원하고, 북한에도 묘목과 선진 기술을 지원해 따뜻한 인심과 동포애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충북 옥천 석화공단주유소



옥천에서 전북 무주 방향 4번 국도에 위치한 주유소로, 품질에 대한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개소한 지 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성장해왔다. 신축 당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편리한 진·출입로와 깔끔한 외관을 갖춰 지금껏 유지해온 주유소이다. 고객감동 서비스 강화활동 일환인 '클린 앤 스마일' 캠페인을 통해 인근에 많은 고객이 고정단골이 되어 꾸준히 찾아드는 주유소로 명성을 누리고 있다.

충북 옥천군 동이면 옥천로 2302(세산리 15-2)

☎ 043-733-7141

묘목축제 오실 때
석화공단주유소
꼭 들려주세요!



천혜의 마루금과 바닷길 걸으며

오롯한 선비정신 일깨운다

경북 영덕 블루로드-목은 사색의 길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동해안을 따라 이어가는 총 연장 688km의 해파랑길에 속한 경북 영덕 블루로드(BLUE road)는 맑고 푸른 바다(Beach), 풍부한 전설(Legend)과 독특한 지역문화(Unique),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는 탈출구(Exit)라는 영문 머리글을 뒀다. 영덕 대게공원을 출발하여 고래불해수욕장까지 64.6km의 해안길은 ‘쪽빛파도의 길’(14.1km), ‘빛과 바람의 길’(17.5km), ‘푸른 대게의 길’(15km), ‘목은 사색의 길’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동해의 풍광과 역사·문화, 환경의 중요성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도보여행 ‘목은 사색의 길’로 발걸음을 옮긴다.

코스

축산항(영양남씨 발상지)- 대소산 봉수대- 사진구름다리- 목은 이색기념관- 괴시리 전통마을- 대진해수욕장- 고래불해수욕장 (17.5km) ▶ 6시간 소요

‘목은 사색의 길’은 축산항이 들머리다. ‘소처럼 생겼다’ 하여 축산도 또는 축산포라 불렸다. 고려 말 영해로 귀양 온 권근이 쓴 ‘양촌집’의 ‘사재소 감 박강전’에 축산도병선도관령이란 관직에 지명이 처음 등장한다. 조선시대에는 1425년에 발간된 ‘경상도지리지’와 1454년에 완성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축산포를 언급하면서 현재까지 쓰고 있다. 한편 축산항을 보호하는 죽도산은 약 3백 년 전, 오씨와 추씨가 대나무를 심고 죽산동이라 불렀다. 주종은 소죽(小竹)이나 보리수와 인동초, 해국·산국, 참나리, 천문동 등 계절마다 분포가 다양하다. 등대가 서있는 죽도산전망대,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섬 한 바퀴 둘러보는 재미가 제법 쏠쏠하다.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블루로드를 알리는 풋말이 산길로 안내한다. 그런데 오르막 입구에 ‘영양남씨 발상지’와 ‘영양김씨 시조유허지’를 알리는 커다란 입석이 나란히 서있다. 왜 같은 자리에 두 개의 성씨를 알리는 비석이 서있을까. 의문은 10여 분 뒤 유허비각에 도착하면서 풀렸다.

영양남씨의 시조 영의공 민은 당나라 여남 출신으로 본명은 김충(金忠)이었다. 신라 경덕왕 14년(755) 안렴사로 일본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태풍을 만나 표류하다 구사일생으로 축산항에 닿았다. 김충이 신라에 남아 살기를 청하자 경덕왕이 당 현종에게 이를 알리니 “그가 살아난 것은

천우신조가 한 일, 원하는 곳에서 살도록 하라”는 답서에 따라 ‘여남에서 왔다’하여 ‘남(南)’씨를 사성하고, 이름은 민(敏)으로 개명한 뒤 영의공(英毅公)에 봉해 영양 땅을 식읍 삼게 했다. 또 영의공을 따라온 큰아들에게도 관향을 영양김씨로 하게 하니, 하나의 시조에서 양성이 생긴 까닭이다. 오밀조밀 이어져 언덕을 가르는 오솔길이 마음 다스리기 안성맞춤이다. 문득 “영의공 부자는 이곳 월영대와 일광대를 선유하며 고향을 떠난 향수를 달랬을 것”이라 생각하며 달은 곳은 금줄을 둘러친 송신문과 명신각이란 산신각이다. 바다에 기대어 사는 어민들이 동해옹왕께 치성 드리는 곳이다. 문이 잠겨 있어 바로 나무계단 길을 따라 내려와 7번국도를 건너 다시 산길로 접어든다.

솔잎이 도탑게 깔린 길은 완만하게 곡선을 이루며 산마루를 향한다. 그렇게 40여 분쯤 오르니 하늘과 맞닿은 능선이다. 동해바다와 함께 축산향과 죽도산이 한눈에 조망되는, 축산면과 영해면을 나누는 대소산 동봉 정상(282m)에 타원형 석조물이 앉아있다. 조선 초기에 축조했다는 대소산봉수대다. 남쪽의 별반봉수대와 북쪽의 평해 후리산봉수대, 서쪽의 광산봉수대, 진보의 남각산 봉수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축산포 지역상황을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 서울(남산)까지 알렸다. 형태가 완전하

게 남아있어 조선시대 통신수단을 알아보는 중요한 자료다.

산마루에서 맞는 바람이 제법 따스한 훈기를 가슴에 담는다. 비록 짙은 숲이라도 ‘길 위에서 길을 묻듯’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운다. 고뇌를 등짐처럼 이고지고 길을 오갔던 사람들이 흘렸을 수많은 땀방울은 무엇을 보상받기 위한 몸부림이었을까. 능선 아래 도열한 소나무들은 미처 제 키를 키우지 못했다. 딱 어린 키보다 조금 높이 자란 나무들은 모두 서쪽을 향해 몸을 구부리고 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을 막기



1. 대소산 봉수대에서 바라본 축산향과 죽도산의 파노라마가 장관이다.
2. 축산면과 영해면의 경계인 대소산 동봉 정상에는 조선 초기에 세운 대소산 봉수대가 있다.
3. 솔잎 깔린 산길은 완만하게 곡선을 이루며 산마루를 향한다.



위험일 게다. 구부리고 뒤틀린 나무 사이로 구불 구불 영근 사연을 주렁주렁 담아낸 숲길을 ‘블루 로드’ 리본 따라 묵묵히 나아간다. 두터운 구름장이 햇빛을 비껴갈 즈음 잔걸음은 다리섬을 위해 망일봉(152m)에서 멈춘다. 예전 선비들이 해돋이를 즐겼다는 자리에 망일정이란 정자 하나 놓여있고, 서원을 창시하고 ‘백운동서원’을 세운 조선 중기 유학자 주세붕(1495~1554)의 시 한수와 효행에 대한 이야기를 농동냥한다.

아버가 옥에 갇혔다. 어린 주세붕은 관찰사를 찾아가 방면해 주기를 호소했으나 거절당했다. 다음날 관찰사가 일출을 보기 위해 망일봉에 올랐다. 주세붕은 그곳까지 따라와 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주세붕의 효성에 감복했을까. 관찰사는 시를 지어보라며 운자를 띄우자 그 자리에서 시를 지었다. 시구에 나타난 높은 기개에 감탄한 관찰사는 주세붕을 칭찬하고 즉시 아버지를 풀어 주었다.

길에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무수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길목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덧붙여져 생명과 문화와 역사를 인도하며 이 모두를 하나로 엮는다. 이제부터는 내리막길인데, 능선 보다는 제법 큰 소나무들이 윤치 있는 숲길을 이뤄낸다. 사진리 출렁다리를 지나자 다시 길은 작은 산등성이를 오르락내리락한다. 예서

는 ‘목은 이색등산로’의 아늑한 숲과 겹치는 구간이다.

‘목은 이색기념관’은 고려말 재상이자 인문학의 대학자요, 대사가로서 불사이군을 실행한 충절 등의 수식어가 따르는 주인공, 포은 정몽주·야은 길재와 함께 고려 삼은의 한 사람인 목은 이색의 외가이자 탄생지이다. 기념관에는 흰 돌을 깎아 세운 동상과 선생의 일생과 업적, 저술 문고가 전시되어 있다. 기념관 뒤편 언덕 위에 관어대가 있다. 당시에는 넓은 바다를 조망하며, 바다에서 유명하는 물고기를 하나하나 셀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울창한 소나무 숲에 둘러싸여 답답한 느낌이다.

아버지 이곡(李穀)은 목은이 6살 때(1333년) 원나라 정동성 향시에 수석 급제했고, 원나라 황제에게 처녀 징발을 중지시킨 경학의 대가였다. 충남 한산(서천)에서 산천경을 찾다가 여덕군 영해에 이르러 머물다 영해향교 대현 김택의 사위가 되어 정착한다. 목은은 이곳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내고 14살에 진사, 26살에 정동행성 향시에 1등으로 합격해 서장관이 됐다. 27살에 원나라 제과 회시에 1등·전시에 2등으로 합격, 원나라 국사원편수관을 지낸다. 이후 승승장구하여 64살에는 한산부원군, 68살에는 한산백에 봉해진 뒤 69세에 여강(여주 남한강) 청심루 아래 연자탄에서 세상을 떠났다. 공거(貢擧: 지방인재를 추천해 등용하는 제도)를 다섯 번이나 관장했고, 권근·김종직·변계량 같은 시대의 명사들이 선생의 문하생으로 조선 성리의 주류를 이룬다.



4. 과시마을 공간구성에서 핵심을 이루는 영영남씨 과시파 종택은 조선후기의 소박한 옛 형식을 잘 간직하고 있다. 한재 보수공사 중에 있다.
5. 고래불해수욕장 넓은 백사장에는 집으로 담장을 두르고 어린 소나무들을 키우고 있다.
6. 구부리고 뒤틀린 나무 사이로 주렁주렁 영근 사연을 담아낸 숲길을 자박자박 걸다보면 사진리 출렁다리를 만난다.
7. 이날 대진 바다는 무척 거칠었다. 어느 길손이 백사장을 걷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이문열의 소설 ‘젊은 날의 초상’ 속의 3부 ‘그해 겨울’의 무대였던 기억이 떠오른다.



외가는 적막한 바닷가 마을에 있고
 풍경은 예로부터 사람 입에 올랐다네
 동녘바다 향해 돛은 해 보려하니
 갑자기 슬퍼 두 눈이 먼저 깜깜해지누나
 황량한 마을에서 하룻밤 단란히 묵으며
 젊은 시절 회포를 자세히 논하지 못했는데
 회상컨대 몇 년 사이 선배들은 다 떠났고
 아침 까치 지저귀더니 어느덧 또 황혼일세
 - '영해를 그리워하며' 이색 -

언덕길을 내려가면 괴시리전통마을이다. 원래는 호지마 또는 호지촌이었으나, 목은이 원나라에서 돌아오면서 들렀던 괴시가 자신이 태어난 마을 풍경이 너무나 비슷해서 아예 마을이름을 고쳤다고 한다. 이곳에 가장 먼저 입향한 사람은 목은의 외할머니였던 함창 김씨. 그 뒤 조선 인조 8년(1630)에 영양남씨들이 들어와 살며 집성촌을 이룬지 어언 380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현재 함창 보수공사 중인 영양남씨 괴시파 종택을 비롯, 영해 경주택, 물소와고택 등 30여 가구가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격년제로 '목은 문화제'와 '호지말 한마당잔치'가 매년 열린다.

대진해수욕장을 가기 위해 왼쪽에 송천을 두고 뺨은 아스팔트길에 올라선다. 나이 45년을 자랑하는 영해전통시장은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물가자미와 대게, 특산품인 복숭아를 거래한다. 장터 한가운데는 '3·1의거탑'이 있다. 1919년 3월 18일, 영해장날을 맞아 면민 3천여 명이 일어난 만세운동을 기념한 것으로, 매년 만세대행진과 합동추념식은 물론 영덕 출신 신돌석 의병출정식과 햇불점화봉송 행사가 열린다.

대진해수욕장은 거친 파도로 을씨년스러웠으나, 길손에게는 색다른 볼거리를 주었다. 어느 길손이 홀로 백사장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적당한 그림(?)이 없어 걱정하던 차였기에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튀어간다. 송천과 바닷물이 만나는 가수지점, 카메라를 반긴다는 인사인가. 갈매기들이 바람을 타고 힘차게 날아오름과 동시에 셔터소리가 경쾌하게 허공을 갈랐다.

사색과 고요, 숙연함을 품었다는 대진 바다는 1980년 이문열이 쓰고 2005년 후반에 발표한 소설 '젊은 날의 초상' 속의 3부 '그해 겨울'의 무대였다. 주인공이 대학을 떠나 머슴 아닌 머슴 생활을 하며 청춘의 아픔과 번뇌를 마감했던 소설 속의 그 자리는 갈매기가 떠났고, 거친 포말 흘날리며 포효하는 파도처럼, 아니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린 내 꿈처럼 황량하다.

고래불대교를 건너면 덕천해수욕장. 병풍처럼 둘러싼 송림 사이로 열린 예쁘고 아기자기한 자갈길을 음미하며 영리해수욕장을 지나 다시 7번 국도로 들어서니 저 멀리 명사이십리를 자랑하는 광활한 고래불해수욕장의 랜드마크, 고래상이 가물댄다. 목은이 상대산에 올라 병곡 앞바다에서 '고래가 뛰노는 모습'을 보고 '고래불'이라 이름 지었다는 이곳 넓은 백사장은 짙으로 길게 담장을 두르고 소나무를 키우고 있다. 훗날 나무들이 잘 자라 웅대한 인공 숲이 돼줄 것을 기대하면서 '아무리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이란 말을 되새기며 블루로드 여정을 마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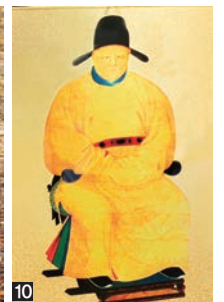
8. 명사이십리를 자랑하는 광활한 고래불해수욕장의 상징이 된 고래상이 길손들을 반겨준다.
9. 산등성이를 오르락내리락하다가 만난 '목은 이색등산로'는 아늑하다.
10. 목은 이색의 초상화.
11. 목은 선생이 탄생한 외가에는 흰 돌을 깎아 세운 동상과 선생의 일생과 업적, 저술 문고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념관을 세웠다.



8



9



10



11

삶이 곧 사랑이고 사랑이 우리 삶의 원천입니다

제품운영2과
김진영 사우의 롤모델
배우 '차인표'

“
봉사활동이란 내가 먹지 못할
열매의 씨앗을 뿌리 행위이다.
그러나 5년, 10년 후에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내 봉사활동이 한 아이 마음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는다.
”

차인표(MBC 스페셜 '3만5천 원의 비밀' 중에서)



배우 '차인표'

글 | 김진영(제품운영2과)

“제가 내민 손길 하나로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고 그 사회가 달라지는 것을 봐요.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한 아이를 살리면 그 아이가 변해서 사회를 살립니다. 내가 번 돈이 이렇게 소중한 일에 쓰인단 걸 목격을 했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KBS 예능 프로그램 ‘힐링캠프’에서 배우 차인표를 보고 큰 감동을 느끼며 스스로를 반성하게 됐다. 차인표를 롤모델로 삼은 것은 그가 많은 자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세상에는 부자집 아들로 태어나거나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 이미 가진 것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는 기부 활동 이외에도 입양이나 해외봉사 등 자기 자신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주고 있었다.

“니눔과 사랑을 실천하니 만 배는 더 행복하다”는 배우 차인표의 말을 듣고, 현실에 만족하고 삶에 안주하던 나에게 인생을 돌아보게 됐다. 내 인생의 롤모델 차인표처럼 직접 실천하면서 니눔의 삶을 살며 따뜻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싶다.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사랑과 축복의 메신저

1967년 10월 서울에서 태어난 차인표는 인생에서 세 번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대학교 졸업 후 미국에서 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때였다.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네가 몇 시간 동안 말한 화제의 대부분이 돈이구나”라는 말을 듣고는 다음날 바로 사표를 쓰고 귀국했다. 하지만 200여 곳의 회사 중에 그를 채용해주는 곳은 없었고, “마지막으로 방송국 공채 탤런트 시험 한 번 도전해보자”는 생각에 방송국의 문을 두드렸다. 심기일전으로 도전한 SBS, KBS에 연이어 떨어지고 1993년 드디어 MBC에 합격, 같은 해 ‘한지붕 세가족’에 출연하며 연기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듬해 출연한 ‘사랑을 그대 품안에’에서 주인공 강풍호 역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며 두 번째 전환점을 맞게 되고, 함께 출연했던 신애라와 1995년 결혼한다. 대중들은 연예계의 대표적인 잉꼬부부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기대했지만 신혼기간에 돌연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현역 입대를 결정했다. 당시만 해도 인기 높은 연예인이 입대하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세 번째 전환점이 된 것은 그가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사실 차인표가 처음부터 봉사활동에 큰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6년 아내가 다른 스케줄로 해외봉사활동을 가지 못하게 되어 대신 그에게 부탁했을 때, ‘우리나라의 가난한 아이들부터 먼저 도와야지 굳이 해외까지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하나’ 싶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인도 시골 콜카타 지방에 도착할 때 자선단체 대표가 “아이들을 만나면 ‘우리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좀 해주세요. 태어나서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봤을 겁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는 그러마 대답했다. 험준한 길을 달려가 한 마을에 도착하자 제대로 씻지 못해 더러운 차림의 아이들이 달려나왔는데 한 남자아이가 그에게 먼저 악수를 내밀었다. 그 손을 붙잡는 순간 갑자기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우리 서로 같이 가자”라는 음성이 들렸고, 곧 그 아이가 그에게 그 말을 똑같이 전해주는 신비한 경험을 겪게 됐다. “내가 한 행동은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의 손을 잡은 것뿐인데, 그날에 내 인생과 가치관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이후 차인표의 활동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새벽에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보며 어렵게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단편영화 <노란 리어카>를 만들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오직 사랑으로’ 키워달라며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러가 하면 친아들 정민이 외에 예은이와 예진 두 딸을 입양해 키우는 등, 세상 사람들이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줬다. 뜻을 공유하는 연예인들과 컴패션 밴드를 만들어 두 장의 음반을 내며 전 세계 가난한 어린이를 돕는 일도 주요 활동 중 하나이다.

오래 전 한 인터뷰에서 차인표에게 ‘왜 그렇게 남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사는가’ 물었다. 그러자 차인표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들의 사랑으로 스타가 됐으니 당연히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스타가 누리는 돈과 인기는 잠시 빌리는 것뿐이니깐요.” 🌻



G2, 중국을 추동하는 힘은

무엇인가!

조정래 <정글만리>



인기리에 방영된 '별그대(별에서 온 그대)'가 증명하자 여기저기서 천송이, 도민준을 찾는 소리가 애타게 들린다. 그런데 별그대의 열풍이 국내뿐 아니라 바다 건너 중국에서도 굉장하다 한다. 중국에서는 때아닌 치맥 열풍까지 불었다는데, 이유인즉슨 전지현의 대사 "눈 오는 날엔 치맥인데" 때문이란다. '별그대'의 인기로 힘입어 중국의 치킨집 매출이 두 배가 늘었다니 한류 열풍은 물론 이를 소비하는 중국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14억 인구의 중국은 이제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경제 대국이다. 이미 G2라는 명칭이 불을 정도로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비즈니스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소련의 갑작스러운 몰락과 달리 거침없이 질주하는 중국!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으로 시대와 역사를 가로지르는 소설을 써왔던 작가 조정래는 그 배경이 궁극했다. 그리고 20년을 꾸준히 고민한 결과 소설 <정글만리>에 담아낼 수 있었다.

작가는 G2로 발돋움한 중국의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등 다섯 나라 비즈니스맨들이 벌이는 숨 막힐 듯한 경제전쟁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낸다. 따라서 '판시'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는 치열한 비즈니스 전쟁의 결과 속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우연하게 중국 판시의 도움을 받아 승승장구하고 있는 종합상사 부장 전대광,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로 중국으로 건너

나와 재기를 꿈꾸는 성형외과 의사 서하원,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프로젝트 수주가 무산되자 서부지방으로 좌천된 김현곤, 상하이 세관원의 주임이자 막대한 권력을 지닌 판시 상신원, 베이징대에서 유학 중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경도된 전대광의 조카 송재형 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3부작의 스토리는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게 한다.

대한민국 역사의 큰 흐름을 짚어낸 대가답게 작가는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단지 비즈니스 전쟁의 일면만을 보여주고자 했다면 흥미만 있는 한 편의 소설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치열하게 전개되는 암투, 급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폐해들, 도시화의 과정에 드러난 인간 경시의 풍조 등 경제발전의 명암은 물론 한·중·일 간 은밀히 내재해 있는 미묘한 감정들까지 포착하여 소설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더욱 폭넓은 관점에서 현 상황을 돌아보게 한다.

G2의 반열에 올라선 중국, 우리 사회는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세계의 공장'이라는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냉철하게 중국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국과 대등한 비즈니스 경쟁을 펼칠 수 있다. 작가가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다. 🌟

〈정글만리〉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명희(경영관리팀)

이 책을 보며 <태백산맥>, <아리랑>과 같은 소설을 원했다면 “이거 소설 맞아?”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조정래 작가가 이 작품을 위해 10년 가까이 중국에 대해 공부하고 직접 방문하면서 메모하고 검증하면서 발로 쓴 생생한 흔적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3권을 속독하는 내내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여행하는 기분이 든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살아간다는 건 마치 정글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해서 지은 <정글만리>. 숨 가쁘게 책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고 마음에 품고, 역설적이지 만 도전해 보고 싶어진다.

모든 일에 만만디를 외치며 천하태평한 그들이지만, 중국의 난징에서는 대학살과 처녀들에 대한 군인들의 강제 집단 강간으로 인간 생지옥을 만들어버린 증오감이 아직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한다. 남경에서는 일본과 전쟁하면 전 재산을 다 내놓겠다고 할 정도니 말이다.

<정글만리>는 단순한 소설이 아니다. 그렇다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다. 등장인물들만 가상인물 일 뿐 이야기 구성은 사실이다. 중국의 역사와 정치, 경제 그리고 미래를 알고 싶다면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문순
편혜영 외 / 문학사상

한 해 동안 발표된 국내 작가의 중·단편소설을 결산하는 '이상문학상'의 38번째 작품집이다. 대상 수상작 '문순(편혜영)'과 함께 '저녁의 구애', 우수상 수상작으로 '법 앞에서(김숨)'를 비롯해 '기억을 잃은 자들의 도시(손홍규)', '파충류의 밤(천명관)', '빛의 호위(조해진)', '프레디의 사생아(윤고은)', '기린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이장욱)', '쿤의 여행(윤이형)', '나선의 방향(안보윤)'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교과서 한국문학(조정래 편)
조정래 / 휴이넷

학생 독자들이 조정래 작가의 작품세계를 재미있고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기획한 책으로,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1년 현대문학상 수상작으로 이탈리아·프랑스어로 번역된 <유형의 땅>, 드라마로 방영되었고 일본·프랑스어로 번역된 <청산택>, 독일어로 번역·출간된 <박토의 혼> 외에 조정래의 대표작 열여덟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본 도서는 지난 2월 1일~28일 본사 자료실에서 가장 높은 대여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담배로 인한 건강 위협의 역사는 길지 않다. 담배는 15세기부터 시작되었지만 담배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역사는 불과 100년도 안되는 대단히 짧은 기간이다. 그런 만큼 담배의 폐해가 명확히 규명된 것도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본다면 담배는 수십 년에 걸친 악연이다.

‘흡연’은 ‘중독’이란 이름의 병

담배 중독



글 심는 순서

알코올 중독
스마트폰 중독
담배 중독
쇼핑 중독
카페인 중독
게임 중독
탄수화물 중독
일 중독
인스턴트 중독
취미 중독
설탕 중독
관계 중독

01.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 의지'

의학적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이 됐건, 니코틴 중독이 됐건 어찌됐건 모든 중독성은 강한 의지로 끊을 수 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흡연이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흡연을 계속해야 하는 것까지 핑계를 스스로 만드는 것은 일차적으로 의지 부족의 문제이다. 즉 흡연은 취미도 습관도 아닌 나약한 의지의 중독인 것이다.

담배를 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이다. 끊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굳은가, 담배의 유해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담배를 끊음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등에 대해 꾸준히 생각하고 있는 사람만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작심삼일에 불과했다면 보다 적극적인 금연 방법으로 병원을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담배의 중독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다. 마약이나 도박도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전문가의 중재가 필요하듯이 담배 역시 호기심으로 한두 개비 핀 정도가 아니라 수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면 반드시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실제로 여러 연구를 보면 혼자서 금연을 시도한 경우 성공률은 3%를 넘지 않으나, 금연전문의사의 면담과 더불어 적절한 금연도움약제의 처방이 이뤄진다면 50%를 넘는 성공률을 보인다고 한다.

한 가지 더 금연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화학조미료도 들어있지 않고 색소도 없으며 사람의 몸에 전혀 해가 될 일 없는 '물'이다. 흡연의 욕망이 일 때 물을 마셔보면 그 정도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한 잔으로 부족하다면 두 잔을 마셔도 좋고, 아침 담배가 생각날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흡연욕구가 강하게 느껴질 때 시원한 물을 마시면 흡연 욕구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냥 물을 마시기가 힘들다면 물에 레몬을 타서 마시거나 녹차의 형태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레몬이나 녹차는 흡연자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C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02. 담배에 대한 잘못된 오해

순한 담배는 정말 순할까?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담배소송과 다국적 담배회사 내부문건 속 국산담배 성분분석〉 2012. 12. 17)에 따르면 흡연자의 약 60% 정도는 순한 담배를 더 깊이 흡입하고 보상심리 때문에 담배를 더 많이 피운다고 한다. 또 니코틴 함유량이 낮은 담배를 피울 경우, 일정한 혈액 내의 니코틴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담배를 피우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일반담배와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 또한 마일드(mild), 라이트(light), 저타르, 저니코틴 등이 쓰여 있는 담배가 순하다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담배에는 니코틴과 타르를 제외하고도 40여 가지가 넘는 유해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순한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덜 해로운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첫번째

담배를 오래 피웠지만 장수 하는 사람이 있다

두번째

과거와 현재의 담배의 가치는 달랐다. 옛날의 담배는 고급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의 흡연 시작 연령과 흡연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요즘 세대와 확연히 달랐다. 이에 담배를 평생 태웠다는 옛날 사람들의 장수 핑계는 더 이상 요즘의 흡연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담배의 유해성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반세기 정도에 불과하고, 그 시간의 차이로 담배 소비량과 폐암 발병률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면 앞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번째

담배를 피워야 일이 된다

이것은 정신적인 금단 증상에서 오는 전형적인 핑계거리 중 하나이다. 그러한 상황을 핑계로 흡연을 스스로 유도하는 것이다. 담배 없이는 일이 안 된다고 느끼는 것은 담배의 중독성이 이성과 생리 작용을 괴롭히는 증거일 뿐이다. 담배가 일을 방해하는 것이지, 금연이 결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담배는 결코 인간의 뇌를 지배할 가치가 있는 물질이 아니다. 흡연을 할 핑계보다는 금연을 해야 하는 이유가 훨씬 많고, 금연 방법 또한 다양하다. 당신이 금연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그 방법을 안다면 이제 '의지'만 살짝 얹어 실천하면 된다. 조만간 담뱃값도 오른다는데, 이제는 정말 끊도록 하자. 🌿



금연하면 돈을 번다

- ① 나는 일과 가족 그리고 친구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 ②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흡연으로 인해 내 건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③ 나의 호흡은 신선하고 깨끗하며, 깨끗한 치아와 외모를 가지고 상대와 대화할 수 있다.
- ④ 주변에 담배냄새와 담배공초가 사라지고 환경이 청결해질 것이다.
- ⑤ 어떠한 공공장소에서라도 편히 지낼 수 있다.
- ⑥ 담배를 살 돈을 저축해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다른 곳에 쓸 수 있다.
- ⑦ 담배에 중독되어 끌려 다니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고 자신감이 생긴다.

독자퀴즈



두 사진 가운데 서로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모두 다섯 군데)

지난호 퀴즈 당첨자

주유상품권

오광식 윤활유1과
김남구 수소3과
노일환 제품운영2과
전수영 자재관리과

USB저장장치

우형진 인력개발팀부
정정현 탈황1과
김익현 수소3과
곽상모 제품운영1과



손 모아 만드는 사보 꿈 모아 그리는 내일

사보 편집실에서는 사우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개인은 물론 팀/과, 부/부문 단위의 소식을 알려주시면 뜻 있는 사료로서 기록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원 개인과 가족, 팀/과 구성원 등 다채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사가 마련되어 있으니 사보 편집실의 문을 적극 두드려 주십시오.
사보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 또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sabo@s-oil.com



〈주요소식〉 사랑의 떡국 나누기

아름다운 봉사입니다. 주위를 보살피는 나눔활동을 많이 소개해주세요. (이정민 수소3과)



〈주요소식〉 2014 대졸 신입사원

80명 신입사원의 단합된 모습과 향후 행보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조형욱 수소3과)
새 얼굴들을 보며 새로운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허경태 탈황1과)



〈햇살나눔〉 어린이 겨울 생애캠프

에스-오일의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이 감명 깊었습니다. (이재면 신광장주유소,광주시 광산구 어등대로)
재미 있어 보여요, 나도 가고 싶어요. (김찬웅 환경관리팀 김대규 사주 자녀)



〈햇살나눔〉 세상을 밝히는 나눔 일꾼이 되겠습니다

나눔으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봉사단 모습을 보니 그 일원으로서 뿌듯합니다. (안준휘 분해1과)



〈야호! 축제다〉 전북 완주 '만경강 달빛축제'

전국 축제에 가보지 않고도 정보를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최주호 수소3과)



〈걷고 싶은 길〉 전주 한옥마을 숨길

전주 숨길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됐고 기회가 닿으면 가보고 싶습니다. (권형운 자재관리과)
가족과 함께 여행하면 좋을 것 같네요. (김용락 수소3과)



〈나의 롤모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최우혁 RHDS공정과)
'나의 롤모델은 누구인가'라는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광동 송유/동력공정과)



〈열린 서재〉 인생수업

행복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신호근 동력4과)



〈마음 읽기〉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사용자 상당수가 이미 중독상태인 듯합니다. 예방법을 잘 숙지해야겠습니다. (천효성 Aromatics동력과)



9 Corporate Initiatives

9가지 전사전략과제로
미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